

반가운 이웃,
남구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초기 협동조합 형태에서 여수신 외에 보험판매, 국고수납, 카드발급 등 명실상부 종합금융기관으로 우뚝 섰다. 올 4월말 기준 전국 1400 곳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112조5960억 원, 1782만명이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고 있다. 남구 내 새마을금고 16곳(직장 금고 제외)의 현황을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대연새마을금고
자산 : 886억원
대출 : 552억원
임직원 : 22명 (지점 2곳)

조선의 패기, 2년 만에 예대비율 3배 꺾중

■대연새마을금고 차 순 근 이사장

남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가장 젊은 대연새마을금고 차순근(53) 이사장은 2012년 3월 첫 취임했다. 조선의 패기와 젊음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면서 금고의 체질을 확 바꿔놓았다. 취임 당시 20%에 머물렀던 예대비율을 현재 60%대까지 끌어올렸다. 예수금·대출금의 비율인 예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가운데 가

장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금융기관의 건정성 척도로 사용된다. 4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비율은 62.9%이고 부산은 56.5%다. 서너번 질문 끝에 털어놓은 차 이사장의 영업 비밀은 '인맥'. 대연동에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며 쌓은 인맥을 심본 활용한 것. 원룸이나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들과 호형호제하며 쌓은 친분을 적극 활용해 알토란 같은 담보대출을 대폭 늘렸다. "신속 건물 담보대출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때 주는 게 관례인데, 저희 금고는 '직거래'로 수수료를 한 톨도 안주고 대출을 성사시켰습시다." 갑작스런 예대비율 급증으로 중앙회에서 부정대출 여부 실사를 나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대연4동 주민자치위원장도 겸하는 차 이사장은 "실수는 용서하되 거짓은 용서할 수 없다"며 근면과 정직을 최우선 경영 이념으로 꼽는다. 차 이사장은 "전국 1400 새마을금고가 모은 안전기금이 1조원에 달한다"며 "새마을금고 만큼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드물다"고 말했다.

			
녹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
옥대웅 전 주민생활국장	주점수 전 대연1동장	하태길 전 대연5동장	김한식 전 도서관 서무담당

남구에서 오랜 세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2014년 상반기 퇴직 공무원 4명이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과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옥대웅 전 주민생활국장은 1973년 11월 지방행정직으로 임용돼 무려 40년 8개월의 공직 생활을 충실히 했다. 젊은 시절 우암동, 구정 충무과, 재무과, 건설과 등을 거치면서 민원업무 외에 총무, 회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2002년 9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용호3동장, 재무과장,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주민생활국장 당시 남구 보건회관 건립과 스카이워크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주점수 전 대연1동장은 1974년 7월 임용돼 영도구와 중구에서 군무를 시작했다. 1986년 11월 남구로 전입해 문현1동, 감만2동, 도시정비과, 총무과 등에서 일하다 2000년 11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용호2·문현1·우암·문현3동장과 구정 제1안전과장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대연1동장으로 군무를 충실히 임했다. 지역주

민들을 위해 봉사한 주 전 동장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에 열정을 다한 결과 대연1동장 시절 2012년 청렴마일리지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태길 전 대연5동장은 1975년 경상남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해 거제군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1978년 2월 거창군, 장승포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1995년 3월 남구정 도시국 지사로 토지관리계장으로 전임했다. 이후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의회사무국 등에서 근무하다 2004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용당동장에 임명됐다. 이후 대연2동, 감만2동, 대연5동장을 역임했다.

김한식 전 남구도서관 서무담당은 1954년 남구에서 출생해 1980년 1월 동래구 시민과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년 뒤 고령 남구로 전입, 우암1동, 청소행정과 등에서 근무하다 2010년 7월 남구도서관으로 발령 받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시 교부금을 확보하고 열람실 환경개선과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대연5동새마을금고
자산 : 822억원
대출 : 646억원
임직원 : 15명

술선수범 리더십, 빗더미에서 알토란 금고로

■대연5동새마을금고 이 정 명 이사장

"저는 팬클럽에 사무실이 누추해 손님들께 죄송하죠." 못골시장 안에 자리 잡은 대연5동새마을금고. 번듯한 4층 사옥에 자산 790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수장의 집무실이 너무 단출하다. 1.5평 남짓에 문도 없고 다 낡은 책상이 고시원처럼 벽 한쪽에 붙어 있다. 이런 검박함과 내림이 '빗더미에 금고'를 살려낸 저력으로 다가왔다. 6월말 기준 금고의 예대비율은 80%. 남구 16

개 금고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2004년 이정명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금고의 재무구조는 바닥 모를 최악이었다. 이월 결손금이 39억 원에 달했다. "막상 취임해보니 회수 불능의 부실채권과 고임금 등으로 흡수합병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배수진을 쳤다. 중앙회를 찾아가 "임직원들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금고를 살펴보겠다"고 담판을 지었다. 이후 고액임금 직원 3명을 명목사기는 등 허리띠를 꼭 죄며 조직을 재정비했다. 직원들과 어깨를 두르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시장상인, 마을주민, 부

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금융 정보를 전파했다. 발로 댄 경영은 곧 기적을 일궈냈다. 2008년부터 금고는 매년 3~4억원의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 39억 원의 이월결손금은 현재 15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개월 만에 자산이 112억 원이나 순증했다. 저금리 추세로 예대마진이 급격히 줄자 수익 다변화도 꾀했다. 보험·상조상품을 판매해 8000~9000만원의 수수료와 자동이체·송금 등 전산시스템 수수료로 5000~6000만원을 버는 등 가뭄이로 매년 1억5000만원의 부가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이사장의 경영 철학은 "발로 뛰고 자신을 홍보하라는 것". "새마을금고도 은행이므로 친절, 신속,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연6동새마을금고
자산 : 741억원
대출 : 435억원
임직원 : 17명
2014년6월말 기준

10년 흑자경영 영업비밀은 신뢰와 정직

■대연6동새마을금고 이 칠 화 이사장

남구청과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대연6동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0년 도산 직전까지 몰렸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폐업 통령까지 내렸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이가 이칠화 이사장이다. 그는 취임 직후 중앙회를 찾아가 "3년의 말미를 달라"고 간곡히 설득했다. 금고는 거짓말처럼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이런 흑자경영은 이후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손실금도 현재 '0'다. 이 이사장의 필살기는 금

용기관의 생명인 신뢰 구축이었다. 누적된 손실금으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하자 이 이사장이 사재를 털었다. 2년간 3000만원의 배당금을 자비로 충당했다. 신뢰와 믿음의 결과는 곧바로 회원의 증가로 나타났다. 당시 2000명에 불과했던 금고 조합원이 현재 5000명을 넘어섰다. 금고는 이윤의 지역환원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경로당 성품전달,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조성 등의 사회환원사업에 매년 2000만원을 쓰고 있다. 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크게 줄었는데도 회원과 고객수는 더 늘어

나는 기현상도 생겨났다. 회원 중에는 금고의 평판을 듣고 멀리 문현동이나 용호동에서 찾아오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던 직전에 "재개발로 정 들었던 경로당이 없어졌다"며 할머니 한 분이 하소연을 하고 갔다고 한다. 새마을금고와 주민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는 "이게 다 신뢰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쓰러져가던 금고를 성장시킨 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이 이사장은 "금고를 고객과 지역에 공헌하는 행복한 디딤돌로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2000년 8월 취임한 그는 14년간 이사장직을 4번째 맡고 있다.



남구 불링팀 '무적 행보'

16회 대한불링협회장배 개인전 1위, 2인조 2위

남구 불링팀(감독 소미경)이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링팀은 지난 6월 22~28일 전주시 미성불링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6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에서 여자일반부 개인전 우승과 2인조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79개 실업선수가 참가한 6월 24일 개인전에서 유성희 선수는 합계 1,379점(평균 229.8)을 기록, 서울시립공단 백승자 선수를 3점 차로 극적으로 제치고 우승을 견인했다. 다음날 치러진 2인조 경기에서도 유성희, 강현진 선수가 함께 2634점(평균

219.5)을 내고 2위를 차지했다. 대회 기간 남구체육회 김태수 사무국장이 대회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남구체육회 황하수, 권영호 부회장이 우승격려금(인목 사지)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현진, 유성희 선수는 지난 4월 제29회 대통령기 전국불링대회에서도 팀을 이끈 2인조 경기에서 합계 2,789점(평균 232.4)을 기록, 2위인 양주시청을 무려 85점 차로 따돌리고 가깝게 우승컵을 들었다. 우승 격려금(오른쪽 사지)으로 체육회 이승준 상임부회장이 100만원을 쾌척했다.



부경대 에코봉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부경대학교 에코봉사단(단장 김영섭)은 지난 22일 대연캠퍼스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4일간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학생, 교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관내 저소득 주민 67가구와 문현 지역아동센터와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찾아 도배, 장판교체, 도색, 청소 등을 펼쳤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에는 부경대가 변

전실, 목공실, 원예실, 설비실 등의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남구청은 사회복지사 5명을 비롯해 봉사단 유니폼과 청소도구 등을 지원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부경대학교 에코봉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금까지 봉사단 532명이 참가해 저소득 주민 53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제3회 청소년 합합댄스 대회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박봉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9일(토) '제3회 청소년 합합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평화공원 특설무대(우전시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7월 21일~ 8월 4일까지 전화(010-9327-8858) 혹은 이메일(secom73@nate.com)로 신청.

문현1동 청소년 봉사자 모집

문현1동은 여름방학 동안 마을 청소 등을 할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다. 이번 봉사는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추진한다. 7월 28일~8월 24일까지 매주 화, 목 오전(9시 30분~11시 30분) 실시되고 신청은 자원봉사센터(636-1365).

부산시 어머니합창페스티벌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은상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단장 이종철)은 지난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회 부산시 어머니합창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받았다.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11개 구·군 합창단이 참가했다.

“이윤보다 주민이 우선” 착한 풀뿌리 금융

새마을금고의 영문이니셜 'MG'는 마을금고의 영문 앞 글자이기도 하면서 '만나면 반가운 이웃(Meet & Greet)'를 의미한다. 새마을금고의 비약적 성장에는 저금리 시대의 특화된 면세·세금우대 상품과 안전기금 비축 등 내외적 환경 변화가 주요했지만, 풀뿌리 금융의 본령에 맞는 활발한 지역 공헌사업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6개 남구 새마을금고협의회(회장 이철형)는 금고별 사회환원기금을 조성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경로당 성품 전달 등 이윤의 주민 환원사업을 활발하게

남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공헌사업

전개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2010년부터 지역희망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학생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매년 3200만원(금고별 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 성취욕구와 인생개발에 도움을 주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마련했다. 남구 새마을금고협의회의 생활과학교실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우수 사례에 채택했고 2011년에는 교육과

학기술부 제8회 평생학습대상 동아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생활과학교실에만 사용하던 지원금을 5개 사업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협의회는 구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및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배달강화 운영 △정전이주년 남구 평화시절단 운영 △행복가족 '사랑의 책' 전달 △평생학습&주민자치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새마을금고 지역희망공헌사업 사례집 발간 등으로 지역주민 750명이 도움을 받게 된다.

빌로체 독서실

최고의 시설로 최선의 면학분위기 조성

- 릉식 소수정에 열람실(넓고 아늑한 공간)
- 인터넷 학습실 완비 (PC 4대 비치)
- 최첨단 컴퓨터 출입시스템의 완벽관리
- 완벽한 냉 · 난방시설, 릉별 환기시설 완비
-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 휴게실(독서실 입구)
- 안전한 귀가길 차량운행(2회 : 새벽 12시 30분, 1시)

051-631-0733 010-2605-6184

남구 유엔로 38번길 41, 1층(우암동 17번지 영남빌로체 상가)우암동새마을금고 옆, 중앙하이츠 후문 옆)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백중기도 접수받습니다



여름불교학교

- 대 상 : 남구거주 초등 1학년~초등 6학년
- 참가비 : 무료(전액지원)
- 일 정 : 7월26일~7월27일 (1박 2일)

8월2일부터 매주 토요일 동명불원 연꽃어린이법회

동명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가을학기 모집

개강 : 9월 초

문의 : 중무소 626-4337, 624-7667

부산작명연구소



작명 전문가 구 기 백
www.busanname.com

- ◆ 대통령 상, 독일 IENA상을 받은 노 학자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하여 작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 ◆ 작명 개명 전문. 아기 이름 전문. 아호 상호 전문. 이름 감정 무료. 개명 상담 무료. 셋째 작명 무료.

YTN 방송사
대상 받음

서울신문사
대상 받음

1. 부산사범대학, 경영대학원

2. 신지식인, 동양 철학지도사

3. 발행 특허권 88개 취득

4. 에디슨연구, 아틀로 대표

5. (합) 한영 물산 한국 대표

6. 한국 아이디어 뱅크 관장

7. 부산일보 1년 6개월 글썽

8. 부산을 달린다 1년 생방송

동래역 1번 출구앞 556-8833 · 010-3045-3883


문수 불교대학 제3기 수행학교(기본교육)

신입생 및 경전반 수강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14년9월15일(월) 오전10시~수행학교, 경전연구반

	수행학교	경전연구반
수업과정	주1회 6개월 과정	2년 과정 (6개월 단위)
수업시간	월요일	주간반 : 오전10시 야간반 : 오후 7시
수강료	입학금3만원(교구, 교재비포함)수업료 월 3만원	수업료 월 4만원
구비서류	소정양식 입학원서, 증명사진3매	
특 전	1. 가족2인 입학 시 1인 수업료 50% 감면 2. 수료증, 수계증(불명부여), 제적사찰 신도증 발급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 및 접수 : (051)624-3754, 623-9253
- ◆오시는 길 :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41(용당동, 부산대연문화회관 뒷산)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주지 지원 상징